



클래식음악의 정통을 지키며 시민의 사랑받는 부산의 대표적 민간오케스트라!



(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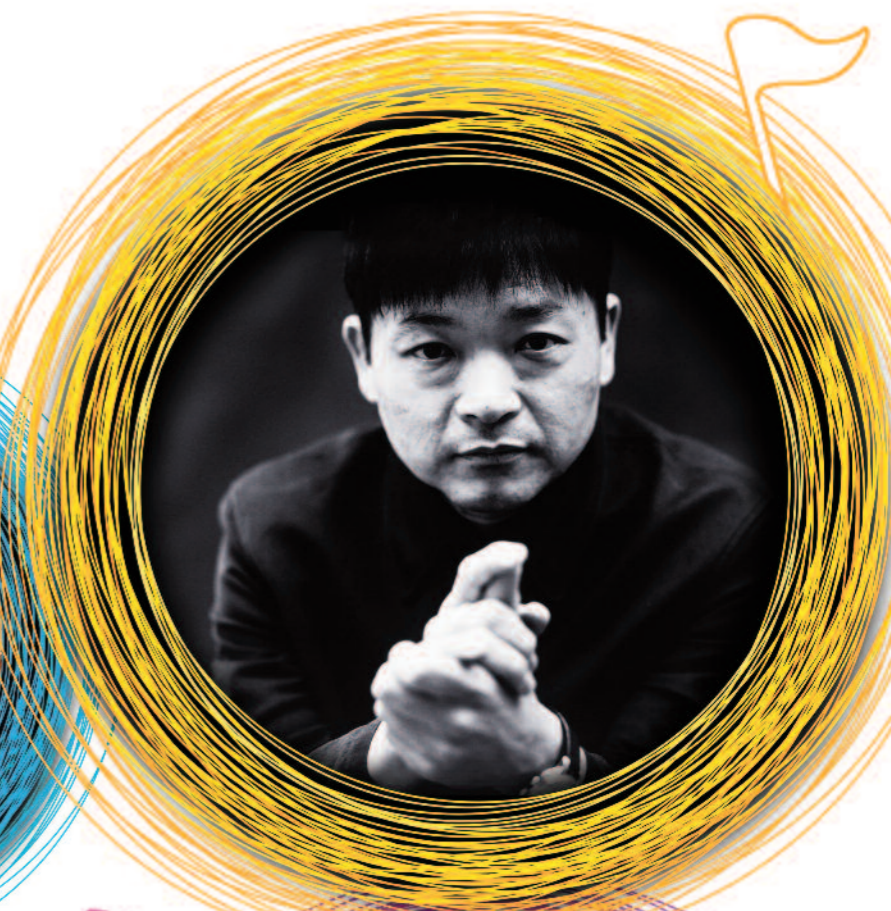
아름다운 열정과 역동적인 면모를 발휘하는 사단법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21세기 문화환경 요구에 부합하는 교향악단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클래식 팬들에게 다가가는 정통 오케스트라로 호평 받고 있다. 2010년 9월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2011년 3월 법인설립 기념음악회를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였다. 그동안 정기연주회, 부산의음악인시리즈, 청소년교과서음악회, 오페라 마술 피리, 라보엔, 부산국제음악제, 부산국제영화제개막식, 대한민국 기업사랑음악회, KNN 더클래식 시리즈, 조수미콘서트, 호세카레라스 독창회 등 수 많은 연주를 통하여 문화상품화의 가능성과 함께 그 음악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10년 부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영도문화예술회관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선정되어 첫 번째 교향곡시리즈를 시작으로 매회 전석매진의 기록을 세우며 클래식 음악의 중흥을 알렸고, 부산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언제나 새로운 형식의 음악화와 레퍼토리로 객석을 감동시키며 최상의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계속해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음악을 선사하는 기쁨의 하모니로 부산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 법인 이사회**
 - 이사장: 제정주
 - 이사: 오충근, 임병원, 이현석, 최종원
 - 감사: 배영상
- 오케스트라**
 - 공동대표: 오충근, 임병원
 - 수석지휘자: 오충근
 - 총무: 이용희
 - 악장: 임병원
 - 사무실장: 문지은
- 연주자 명단**
 - 악장 임병원
 - 제1바이올린 이정미(부악장) 홍기정(수석) 황지원(수석) 김희진(부수석) 이은실 임나리 박완서 정다혜 김푸름
 - 제2바이올린 김정은(부악장) 김언정(수석) 손주연 정희경 진선미 전지원 이예나 김설화
 - 비올라 최영식(객원수석) 정지윤(부수석) 김상철 한동민 배소현 이현원
 - 첼로 김판수(수석) 하유나 강진희 고정임 조선일 손미리
 - 베이스 박희철(수석) 이지영(부수석) 박경호(부수석)
 - 플루트 김동욱(수석) 채성경
 - 호른 강덕만(수석) 문동주(수석) 이유경 박용인(객원)
 - 오보에 노영훈(수석) 박지연(부수석)
 - 트럼펫 주현(수석) 전상윤
 - 클라리넷 홍병희(부수석) 이효주
 - 트롬본 이용희(수석) 배유인 주성혁
 - 악보 손민지 임종필
 - 바수운 강철환(객원수석) 김동주
 - 튜바 김기울
 - 악기 주성혁 배유인
 - 팀파니 이승환(객원수석)
 - 무대 전상윤 김재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차기 공연안내

공연명	일시	장소	지휘	협연
제12회 청소년교과서음악회	2011년 8월 11일(목) 2011년 8월 12일(금)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BN그룹과 함께하는 제4회 대한민국 기업사랑음악회	2011년 9월 8일(목)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오충근(수석지휘자)	

* 위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11 **6.7(화)** pm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31회 정기연주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교향곡 시리즈 IV

Busan Symphony Orchestra Symphony Series IV

* 본 공연은 2011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시행됩니다.

PROFILE



지휘
진윤일

비올리스트 겸 지휘자 진윤일은 서울대학교에서 김용운을,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 연구과정에서 바실리 시나이스 키(지휘)와 알렉산드르 보브롭스키(비올라)를 사사하고, 아스페란투라 과정에서 철학, 음악심리, 연주사 등의 전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인 최초로 비올라 연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비올리스트로서 유학전 이미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사중주단 단원으로 활발한 국내외 연주활동을 하고, 유학 중에 모스크바 음악원 실내악단 연주자로서 독주와 협연을 했던 그는 귀국 후에는 ASI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약하였고, 수 차례 독주회 무대에 올랐다. 특히 2006년 광주항쟁을 주제로 한

독주회에서 따뜻함 속에 냉혹한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연주자로 호평 받았다.

인정받는 비올리스트인 그가 지휘자로 입문하는 데에는 모스크바 음악원 학장이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세르게이 크라브첸코의 권유가 결정적이었다. 음악을 보다 더 정확하고 폭넓게 조망하려는 열망으로 시작된 그의 지휘자로서의 여정은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예프 등 러시아 작곡가에 뛰어난 해석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카자흐스탄 국립교향악단, 폴란드 비니압스키 오케스트라, 목포시향, 대전 Art교향악단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에 초청되었으며 숙명여대, 부산대, 강남대, 백석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지휘봉을 잡은 그와 음악적 교감을 나누고자, 세르게이 크라브첸코, 아이만 무자하자예바, 데이비드 김 등 뛰어난 솔리스트들이 수차례 그의 무대에 올랐다. 이러한 그의 음악적 깊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불가리아 문화성 주최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Earth and Men>등 국내 유수의 음악 콩쿠르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2006년부터 그가 상임지휘자로 이끌고 있는 목포시립교향악단은 예향 목포의 문화 아이콘으로 거듭나면서, 여러 차례 서울 초청 연주무대를 통해 그 역량을 과시한 끝에, 금번 16년 만에 교향악 축제에 초청되기에 이르렀다.

그의 음악을 이끄는 정신적 모태는 'Passion & Sharing'(열정과 나눔)이다.

나눔, 그의 음악 나눔의 철학은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연주회,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음악을 다양한 주제로 강의하는 '맛있는 음악 감상회', 그리고 로비콘서트, 생태공원 연주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열성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열정, 그의 새로운 음악세계로의 열정은, 남도국립국악원과의 합동 연주회, 새로운 국악작품의 발굴과 오케스트라와의 접목을 통해, 국악과 오케스트라의 만남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서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도 큰 몫을 감당하고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발견과 도전을 즐기면서, 겸허하고 꾸준한 자세로 노력하는 그의 존재는 대한민국 음악계 발전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바이올린
한효림

2010년 한국음악협회가 선정한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한 영민한 바이올리니스트 한효림은 감성과 이성이 잘 조화된 음악성으로 어려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만 3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와 예원학교 재학 중 도미하여 13세에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하여 2010년 졸업하였고 2011년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한다. 영아티스트로서 그의 행보는 일찌감치 차세대 세계에 한국을 빛낼 아티스트를 예고한 듯 이화경향 콩쿠르음악춘추, TBC 대구방송, 한얼, Summit Music Festival Competition, Wienawski Junior competition, Bachnalia violin competition, and Allentown Symphony Association's 13th Schadt String Competition 등 각종 콩쿠르를 석권하며 그 재능을 세삼 확인시켜 주었다.

KBS 교향악단, 서울시향, 대구시향, 창원시향, 부산 신포니에타,목포시향 경북도립, 한국원로교향악단을 비롯해 미국 Chattanooga symphony, Orquestra do Norte Portugal, China National Symphony, Curtis Chamber Orchestra 등 국내외 굴지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지휘자와 평론가들로부터 "그 예술의 매혹적인 독자성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음악의 깊이를 진솔하게 그려내는 촉망받는 아티스트"란 평가를 받고 일취월장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캐리어로 연주회 때 마다 보여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에 '무대의 영광'으로 화답했다.

한효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에서 김남운을 사사했고, 예원학교에서 양고운을 사사했으며 커티스 음악원에서는 Aaron Rosand과 Victor Danchenko를 사사했다.



작곡
김종욱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작곡전공 졸업
- 미국 Johns Hopkins University Peabody Conservatory of Music 졸업
- 미국 Indiana University 교환교수
- 주요 작품 : "Image" for Orchestra" 외 다수기악곡, 혼성합창곡 "주를 찬양하라" 외 다수의 합창곡
- 한국교회음악학회 회원, ISCM 한국지부회원, 향신회, 부산작곡가협회, 부산창작합창21회원
- 현,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교수

PROGRAM

김종욱
Jonguk Kim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미지 II"
"Image II " for Ochestra

차이코프스키
P.I.Tchaikovsky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35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바이올린 한효림

- I Allegro moderato
- II Canzonetta. Andante
- III Finale. Allegro vivacissimo

INTERMISSION

멘델스존
F.Mendelssohn

교향곡 제5번 라장조, 작품107 "종교개혁"
Symphony No.5 in D Major, Op.107 "Reformation"

- I Andante - Allegro con fuoco
- II Allegro vivace
- III Allegro vivace
- IV Andante con moto - Allegro maestoso

PROGRAM NOTE

김종욱 오케스트라를 위한 "이미지 II"

인간의 기억속에는 서로다른 이미지를 품고 있다. 그 속에는 어디선가 들어본 직한 음악들이 있을 것이고, 어린시절 추억이 있을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보고 느끼는 많은 이미지 속에서 떠오르는 연상들을 몇개의 단편으로 이야기한다. 만남과 헤어짐, 서로간의 어울림과 어울리지 않음, 악기간의 다름. 그것들의 대비를 리드미컬하게 표현한다.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35

1877년 겨울부터 차이코프스키(러시아)는 이탈리아· 스위스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 여행했는데, 그 동안에 그는 우연한 암시로 이 협주곡의 구상을 얻어 단숨에 완성했다. 차이코프스키는 이 협주곡 속에 러시아 풍의 주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베토벤(독일)· 멘델스존(독일)· 브람스(독일)의 협주곡과 함께 유명하다.

제1악장 Allegro moderato 명상적인 서주 뒤에 가요풍의 매력 있는 주제가 바이올린에 의해 노래된다.

제2악장 Canzonetta-Andante 신비한 러시아풍의 화성으로 목관악기가 서주부를 연주하여 바이올린의 주제 연주를 앞선다.

제3악장 Allegro vivacissimo 관현악의 서주에 이어 바이올린이 주요 주제를 제시한다. 갑자기 생생한 리듬과 분방한 러시아 풍의 무곡조가 튀어나온다.

멘델스존 교향곡 제5번 라장조, 작품107 "종교개혁"

멘델스존의 5개 교향곡중 제5번이라는 마지막 번호가 붙어 있지만, 사실은 제3번, 제4번 교향곡보다 먼저 작곡된 곡으로 출판시기가 늦어진 것이 그 이유이다. 이 곡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00년제를 기념하여 1830년에 작곡되었고, 1832년에 베를린에서 초연되었다. 멘델스존 특유의 낭만성보다는 신앙적인 엄숙함과 경건미가 장엄하게 드러나는 곡이다. 또한 곡의 구상이나 수법에서 표제음악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제1악장 Andante 4/4박자 - Allegro con fuoco 2/2박자 소나타 형식. 처음에는 느린 템포의 긴 서주인데, 새로운 종교의 기원을 암시하는 것 같은 엄숙함이 깃들어 있다. 특히 서주에서 17세기경 드레스덴 궁정교회에서 사용하던 「드레스덴 아멘」이 장중하게 울려 퍼진다.

제2악장 Allegro vivace, Bb장조 3/4박자 겹세도막 형식. 빠른 템포의 쾌활한 악장으로 주부의 주제는 그의 교향곡 「스코틀랜드」에서의 비바체의 리듬을 변형시킨 것이다. 트리오의 밝고 분주한 크리스마스 축제의 설레임을 연상시킨다.

제3악장 Andante g단조 2/4박자 2부 형식. 짧은 간주곡풍의 악장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듯한 선율이 중심이 되고 있다. 제1바이올린의 주된 연주로 진행하며 레지타티보풍의 가요로 전개된다.

제4악장 Andante con moto G장조 - Allegro maestoso D장조 4/4박자 자유로운 소나타 형식. 루터가 작곡한 코랄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개신교의 찬송가 선율이 중심이 된다. 이 곡은 루터가 예배때 교인들과 같이 찬미하기 위해 작곡한 중찬가이다. 주부는 알레그로 비바체 D장조 6/8박자로 화려하게 발전하여 다시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D장조 4/4박자로 변화된다. 이 부분은 아주 발달한 악장으로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종교개혁의 위엄을 찬양하는 힘차고 당당한 기세로 연주된다. 제1주제가 힘차게 투티로 제시된 후 발전부와 재현부를 거치는데, 코랄의 테마가 수시로 제시되면서 곡은 장엄하게 마무리된다.